

태풍 오기전 시설물 살피기 철저

시설 안으로 물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환기팬 설치된 경우 환기팬 켜 바람피해 최소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풍으로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풍이 오기 전 시설물 안전 점검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25일 당부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시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물 빼는 길)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나뭇가지나 유리 조각 등 작은 파편이 강풍에 날려 피복재를 파손시킬 수 있

으므로 시설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환기팬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환기팬을 켜 바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피복이 찢어진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 천창과 결창(측창) 여닫는 부위, 비닐 패드 등을 확인해 내부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복재가 골조에 밀착되지 않고 팔력이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피복재를 하우스

(은실)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킨다. 태풍으로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피복재를 찢는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토로 이뤄져 같은 기초형태라도 내륙보다 뿌리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방석 기초와 버팀대(근기) 등을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태풍이 발생한 지역의 땅은 물기가 많아 시설 내부의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작물에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살균제를 뿌려 병을 예방해야 한다. 태풍 피해를 보았을 때는 지역의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을 복구할 때는 내재해 규격으로 설치해 태풍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내재해 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기술-농자재-내재해영 시설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태풍에 대비해 비닐은실 같은 농업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차질없이 작기 영농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목표로 K-Seafood 해외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K-씨푸드, 해외로 뺏어나간다

aT, 울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 목표

이달부터 수산물 활용 레시피 홍보 등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수산물 수출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목표로 K-Seafood 해외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B2B 지원을 우선 강화할 계획이다.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7월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지역의 외식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국 수산물 활용 레시피 홍보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파리, 호치민 등 8개 국제식품박람회에도 참여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Seafood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해 9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수산홍보관을 개설하여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유망 수산식품의 드라마 간접광고(PIL)와 베트남 K-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해외 홍보·관

촉 행사를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수출기업 및 품목 조직 육성을 위해 수산업체 33개사에 대해 생산부터 해외 진출까지 통합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김·전복 등 8개 품목 선도조직에 총 12억원 규모의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해 수산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산업체들을 위해 약 60여 건의 해외 현지 시장동향 조사보고서를 배포하고, 물류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에 수산식품 수출 전용선박을 지원한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 성파는 수출업체의 노력은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수출지원을 활발히 펼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정부와 함께 K-Seafood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수산식품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15기 '꿈이룸' 전주점 입소

예비창업자 대상 멘토링·사업화 자금 등 지원 공용점포서 12주동안 직접 사업 운영·체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25일 전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의 경영체험 교육을 위해 '꿈이룸' 전주점 입소식(5개 점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체계적인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창업 준비부터 인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입소한 15명의 교육생은 지난 5월 16일 입교해 60시간의 창업기초·전문교육과 4주간의 1:1 맞춤형 멘토링, 최대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공용점포(꿈이룸)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는 등 실제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꿈이룸' 전주점 5개 점포는 9월 말까지 12주간 운영되며, 비입주 교육생의 아이템 및 카탈로그 등도 함께 전시·홍보한다.

수료 후에는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심사해 최대 1억 원의 정책자금과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의 긴급경영컨설팅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25일 전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기 교육생의 경영체험 교육을 위해 '꿈이룸' 전주점 입소식(5개 점포)이 열렸다.

로컬푸드 이해도 향상, 출하농가 소득확대로

북전주농협, 신규출하자 교육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80여 명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북전주농협은 올해 11월말 개장을 목표로 전주월드컵경기장 맞은편 반월동 일대 부지 9,810㎡, 건물 3,102㎡(2층)에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북전주농협에서는 제대로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어 관내 농민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의 농산물 판매에 많은 애로가 있어 왔다.

이번 로컬푸드 신규출하자 교육은 로컬푸드에 출하를 희망하는 150여 명의 조합원 중 전주푸드에서 출하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처음 로컬푸드 교육을 받는 분들로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산역사인 완주 용진농협 이종진 상무를 강사로 초빙해 로컬푸드의 이해와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북전주농협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80여 명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로컬푸드 신규 출하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 있는 교육이 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우광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출하농가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공급

함으로써 북전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고 출하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확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북전주농협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병수 농어촌공 부사장, 남원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김병수 공사 부사장이 지난 22일, 남원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사항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수 부사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무더위에 땀 흘리고 있는 지사 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최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사례를 현장 관계자에게 생생하게 전파하며, 유사

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충호 지사장은 지사 가뭄극복 대책 현황을 보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85억원을 투입해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2조 7.6km, 운수로 8조 6.7km를 설치 중이며, 사업이 완공되면 대상년 주생년 일일 154.6ha의 수



해면적에 수자원확보, 관개개선, 소득증대 및 영농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북도민의 건강한 가정경제회복 및 경제적 자립·회생 지원을 위한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들의 경제적 자립·회생 지원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

전북신보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지난해부터 6차례 진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북도민의 건강한 가정경제회복 및 경제적 자립·회생 지원을 위한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은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을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금융부실 재발 방지교육,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경제활동 재개의 희망과 재도전의지를 북돋고 고안시킬 수 있는 마음치유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은

작년부터 6차례 진행했으며, 총 112명의 채무조정신청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유용우 이사장은 "함께 가요! 라두드림 금융교육"이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재기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전라북도 내 금융취약계층의 반복되는 경제악화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credit.or.kr)와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063-230-3333 내선6) 또는 063-230-3339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